

제약, 신년 경영화두는 글로벌·혁신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글로벌 인재 양성 ... R&D 통한 자기혁신도 주문

국내 제약기업들이 2015년 경영화두로 글로벌과 혁신을 지목했다.

국내 주요 제약기업들은 시무식을 통해 도약을 위한 자기혁신과 글로벌 역량 강화의지를 다졌다.

유한양행은 2014년 국내 최초로 매출액 1조원을 달성했으며, 2015년 경영슬로건을 <혁신 유한, 새로운 가치 창조>로 결정했다.

녹십자는 2014년 수출이 2억달러에 달했으며, 2015년에는 글로벌화 작업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녹십자는 2015년 상반기 캐나다 공장을 착공하고 글로벌 진출에 따른 생산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등의 동아쏘시오그룹은 신년사에서 “2015년에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면서 신약개발, 글로벌 역량강화,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을 주문했다.

대웅제약도 글로벌 제약기업 도약, 고객가치 향상, 역량강화 등을 경영방침으로 선정하고 2020년에는 해외매출이 국내매출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은 신년사를 통해 R&D(연구개발) 부문에서 글로벌 성과를 강조했으며, 종근당도 글로벌 리더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경영목표로 제시했다.

보령제약 김승호 회장은 “연구개발에서부터 모든 지원업무에 이르기까지 글로벌한 시각과 사고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감으로써 2015년을 글로벌 성장의 원년으로 만들 것”을 당부했다.

삼진제약 이성우 대표는 “고객가치 극대화, 미래 경쟁력 확보, 준법 경영을 통해 실질적 성장을 일굴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5/01/06>